

미국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심리사회적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역할

- 보호변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김 영 미

(동의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미국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심리사회적 보호변인들과 위험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들 중 보호변인들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개별 보호변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The Monitoring the Future 2002 연구의 10학년 4,362명의 사례를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위계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친구의 영향력, 감각추구성향, 일탈행동경험이 문제성 음주에 대해 유의미한 위험변인으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보호변인의 경우에는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부모와의 유대, 학교에 대한 유대, 친사회적 활동이 직접적으로 문제성 음주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보상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친구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문제성 음주를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성 음주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제성음주, 보호변인, 위험변인, 보상효과, 완충효과

1. 서론

청소년기의 음주시도는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의도적이고 기능적인 행위로 설명되고 있다(Jessor, 1987). 그러나 탐색적인 음주수준을 벗어난 빈번한 폭음(binge drinking), 만취(drunkeness)와 같은 문제성 음주형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1) 연구자들 사이에서 '문제성 음주'의 개념화와 조작화의 명확한 합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Ellickson(1996)이 음주 빈도와 양을 기초로 알코올 오용(alcohol misuse)의 지수에 대한 조작화를 시도했고, 그 외 학자들은 폭음, 만취의 음주형태를 alcohol misuse, binge drinking, heavy drinking, problematic drinking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된다. 일반적으로 폭음과 만취의 음주형태는 청소년들에게는 비교적 드문 현상으로 생각해왔으나, 미국의 최근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12학년의 35%, 10학년의 26% 정도가 지난 30일 동안 만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Johnston, O'Malley, and Bachman, 2003). 청소년들의 폭음과 만취는 즉각적으로 폭력, 마약사용, 비위생적인 성관계, 취중운전과 같은 위험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인기의 음주유형으로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부정적 대처기술의 형성, 정서적,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nes, Welte, and Hoffman, 2002; Schulenberg, Wadsworth, O'Malley, Bachman, and Johnston, 1999).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 음주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특성과 예방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강조해왔다. 이러한 경향의 영향으로 예방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되는 위험변인과 보호변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oie, Watt, West and Hawkins, 1993; Hawkins, Arthur, and Catalano, 1995; Wasserman and Miller, 1997). 문제성 음주유형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와 미성년 문제성 음주자의 수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음주시도(alcohol initiation), 단순한 음주빈도, 관련문제행동(alcohol-related behavior problems)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Ellickson, McGuigan, Adams, Bell, and Hays, 1996; Windle, 1999).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는 다른 일반적인 음주유형에 비해 장기적으로 그 예방효과의 효율성이 크고, 일단 탐색적인 수준에서 음주를 시도해서 간헐적으로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위험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성 음주유형을 표적으로 하는 다각적인 예방적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략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험적으로 관련 예측변인들을 확인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문제성음주의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역할을 명확화, 구체화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험변인(risk factor)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제성 음주를 시도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음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과 상황을 말한다(Coie et. al., 1993). 프레이서와 그 동료들은(Fraser, Richman and Galinsky, 1999) 위험변인의 특성을 3가지 —수동적(passive), 반응적(reactive), 반사적(reflexive)— 효과의 연쇄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동적 효과는 개인이 조정할 수 없는 가족, 주변 환경의 영향력을 의미하고, 반응적 효과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갖게 되는 소외감, 절망감 등으로 설명된다. 반사적 효과는 주변의 영향력(ex. 음주를 즐기는 친구들)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성 음주 역시 위험변인에 연관된 개인의 수동적, 반응적, 반사적 특성의 상호 연관된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음주 및 약물에 대한 초창기 개입의 목표는 주로 문제에 대한 위험변인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데 강조를 두었다. 그러나 위험변인은 개인의 수동적, 반응적 효과에 의해 이미 내성이 형성되어 변화를 위한 개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Hogan, Gabrielsen, Luna, and Grothaus, 2003), 점차 보호변인에 대한 관심이 예방적 개입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위험, 결핍, 문제보다는 강점(strength), 장점(asset),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가치를 두는 사회복지분야의 관점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Greene, 2002).

위험변인에 비교될 때, 보호변인(protective factor)에 대한 관심은 보다 늦게 제기되었고, 그 개념

과 조작화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Pollard, Hawkins, and Arthur, 1999). 보호변인은 단순히 '위험이 없는 상태'나, '위험의 반대'로 정의될 수 없다. Rutter(1987)는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은 단일 차원의 상반된 개념으로 선형(linear)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Jessor, Den Bos, Vanderryn, and Turbin, 1995; Newcomb and Felix-Ortiz, 1992). 같은 맥락에서 프레이서(1999)는 보호변인의 기능을 보상(compensatory) 효과와 완충(buffering)효과로 구별하여, 예방에 대한 보호변인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호변인의 보상 효과는 위험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자체의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여, 완충효과는 위험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문제에 대한 위험변인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완화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는 보상효과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보된 개념으로서 위험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기능하므로, 문제성 음주의 경우에도 위험변인들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하는 개별 보호변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예방프로그램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utter, 1987; Hawkins, Catalano, and Miller, 1992; Steinhausen and Metzke, 2001).

따라서 청소년 문제성 음주에 대한 예방적 전략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문제성 음주의 심리사회적 위험변인들과 보호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이 문제성 음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한다. 둘째, 예방적 개입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심리사회적 보호변인들의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위험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보호변인들의 완충효과를 확인한다.²⁾

2. 이론적 논의

1) 문제성 음주의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을 설명하는 이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관련된 위험변인과 보호변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을 검토하였다. 이들 이론들은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 인지적 태도, 부모, 친구의 영향력, 환경적 요소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청소년의 약물사용, 비행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다변인적 이론들이다.

사회통제이론(Elliott, Huizinga, and Manard, 1989; Hirschi, 1969)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메커니즘으로써 전통적인(conventional) 사회체제와 모델에 대한 유대(bonding)의 중요성을 강조한

2)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완충효과와 유사한 용어인 중재변수(moderator factor)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한 연구들은 위험의 수준에 따라 보호변인의 효과를 구별하여 분석하는 변량분석모델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계회귀분석을 활용해서 보호변인의 역할을 대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중재변수'라는 용어 대신에 Fraser, Richman, Galinsky(1999)가 정의한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 이 이론은 네 가지 개념체계—애착(attachment), 관여(involve-ment), 수행(commitment), 신념(belief)—에 의해서 사회적 유대와 통제를 설명한다. 전통적 사회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학교, 지역사회에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통제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어, 친사회적(prosocial)인 목표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Nagasawa, Qian, and Wong, 2000; 585).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부모나 학교에 대한 유대, 문제행동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수용, 친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문제성 음주나 비행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억제할 수 있는 보호변인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문제행동이론(Jessor and Jessor, 1977)은 청소년의 인지정서적 특성, 개인간(interpersonal) 요소들,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통합한 접근이다(Donavan, 1996; Petraits, Flay, and Miller, 1995).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의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세 가지 체계—① 퍼스낼리티체계(the personality system), ② 인지된 환경체계(the perceived environment system), ③ 사회환경체계(the social environment system)—의 상호관련성에 의해 비롯된다. 퍼스낼리티 체계는 개인의 동기화-부추김(motivation-instigation), 신념, 통제구조로 설명되며, 인지된 환경체계는 부모와 친구로부터의 영향력과 통제를 강조한다. 체계내의 이러한 특성들이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에 대한 참여를 부추기거나 통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행동 이론가들은 부추김(instigation)에 관련된 변수들을 위험변인으로 규정한다. 인지된 환경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부추김이라 할 수 있는 친구의 권유와 압력, 개인의 성취와 통제능력을 방해하는 퍼스낼리티, 일탈행동(deviance)에 대한 내성(tolerance)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위험변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문제행동이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보호변인으로서 부모와의 유대, 친사회적(prosocial) 활동,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학교에 대한 유대를 선택하였다. 부모, 학교와의 유대와 친사회적 활동은 사회통제이론과 문제행동이론에서 설명하는 전통적인 사회체계로부터의 지지와 통제, 문제행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억제할 수 있는 대인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청소년들이 전통적 사회체계와의 유대를 통해서 10대들의 과도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과 부정적인 기대효과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위험변인은 친구의 영향력, 절망감,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일탈행동경험을 포함한다. 친구의 영향력은 인지된 환경으로부터의 대표적인 자극과 부추김을 나타내고, 절망감과 감각추구성향은 친사회적인 유대, 성공, 동기화, 통제능력을 방해하는 인지정서적 구조를 설명한다. 또한 일탈행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일탈행동에 대한 내성정도와 그러한 기회의 노출정도를 보여주는 변인이다.

2) 문제성 음주의 심리사회적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선정된 문제성 음주의 심리사회적 보호변인은 부모와의 유대, 친사회적활동,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학교에 대한 유대이다. 부모와의 유대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밀접하고

지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전통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Fletcher, Darling, and Steinberg, 1995; Jackson, Henricksen, and Dickinson, 1999; Stattin and Kerr, 2000). 부모의 감정적인 지지, 자녀의 활동과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적절한 행동기준과 규칙, 자녀와의 대화정도는 청소년 비행과 약물사용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보호변인으로 확인되어 왔다(Coombs, Paulson, and Richardson, 1991; Farrell and White, 1998; Mason and Windle, 2001).

피셔베인과 아첸(Fishbein and Ajzen, 1975)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신념, 기대, 태도는 실질적인 음주 의도와 행위의 전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한 신념은 음주행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지를 말한다. 즉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가 청소년의 음주여부와 음주형태를 결정한다(Ennett and Bauman, 1991; Keefe, 1994). 음주를 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낮은 나이에 음주를 시도하고 친구의 음주권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Flor, Hollett-Wright, McCoy, and Donovan, 1999; Keefe, 1994).

청소년의 개인내 특성 중, 전통성(conventionality)은 음주와 약물사용의 주요 변수이다(Gorman and Derzon, 2002; Newcomb and Bentler, 1988; Scheier and Newcomb, 1991; Schlenberg et al., 1996). 전통성은 “기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가치와 행동기준을 수용하고, 기존 사회제도에 유대감을 느끼면서 참여하고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성향”(Donavan, Jessor, and Costa, 1991; 52)으로 정의된다. Ellickson, Crosnoe과 Dornbusch(2000)는 전통성을 구체화한 변수 중, ‘친사회적 활동(prosocial activity)’은 문제행동에 대한 참여기회와 친구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의 참여를 억제시킨다고 설명했다. 보호변인들 중, 학교에 대한 유대는 학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내면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에 대한 욕구와 같은 요소로 설명된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밀접한 유대를 통해 친사회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고, 대학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성취욕구를 갖게 되며, 학업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약물사용에 관여할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Ellickson and Hays, 1992; Hawkins et al., 1992; Bahr, Marcos, and Maughan, 1995)

본 연구의 심리사회적 위험변인은 친구의 영향력, 절망감,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일탈행동경험이다. 친구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음주, 약물사용에 가장 강력한 근접 영향력이다. 많은 연구들은 음주를 하는 친구의 영향력이 청소년들의 음주의 위험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검증해 왔다(Ary, Tildesley, Hops, and Andrews, 1993; Curran, Stice, and Chassin, 1997). 술을 마시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음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가치, 행위를 모방하게 되고, 또래들로부터 음주에 대한 권유와 압력을 받게 된다. 친구의 영향력은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음주에 연결시키는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Bahr et al., 1995).

절망감은 자아, 타인,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이에 관한 신념체계를 보여주는 변인이다. 절망감은 자이에 대한 불명확함, 일상의 역할과 활동의 무의미함에 대한 염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이러한 느낌은 삶에 대한 목표의식과 사회적 관계성(connectedness)에서 비롯되는 규제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이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물사용, 비행

등에 위험변인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Hawkins et al, 1992; Jessor et al, 1995).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서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한 경험이나 감각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Zuckerman, 1994). 감각추구성향은 모험추구(risk-taking), 경험추구, 통제를 벗어나려는 경향, 무로함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퍼스낼리티 성향은 취중운전, 폭음 등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her, 1994; Donovan, 1999; Zuckerman, 1994).

일탈행동경험은 청소년의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가출, 폭력, 기물파손 등에 대한 청소년의 관여 정도를 나타낸다. 특히 일탈행동경험 정도는 비행 및 위험행동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통제력과 내성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변수이다. 일탈행위에 참여한 경험이 많고, 이미 내성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또 다른 문제행동인 폭음이나 만취행위에 관여할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onavan, Jessor, and Costa, 1999; Gorman and Derson, 2002).

3. 자료, 변수와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The Monitoring the Future; A Continuing Study of American Youth, 2002(이하 MTF 2002)”에서 10학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MTF 연구는 1975년부터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규모로 실시되는 패널연구로서, 1975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1991년부터 10학년과 8학년을 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MTF 2002 10학년 연구는 전 미국지역 130개 고등학교 10학년 1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미국 청소년들의 음주, 마약사용의 경향, 퍼스낼리티, 가족, 학교, 친구, 지역사회, 성역할, 종교, 비행, 미래관, 직업, 레저, 취미활동 등에 관한 270여개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주와 관련해서 음주 빈도, 양, 유형(drinking pattern), 장소, 연령, 기대효과, 접근성, 기준(norm)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MTF 2002 연구는 지난 30년간의 패널연구를 통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대표성 있는 가장 최근의 미국청소년의 음주, 약물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개인의 심리사회적, 인지적, 환경적 변인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 자료이다. MTF 2002의 10학년 자료(N=14,683)는 4가지 유형의 설문지 양식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후술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주요 통제변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설문지 양식 2(Form 2)에 응답한 10학년 4,362명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3) MTF 10학년 자료는 4가지 설문유형(Form I~IV)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지는 인구학적 정보, 음주 및 마약사용에 관련된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가족, 사회환경에 관련된 질문들의 포함여부는 설문지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MTF 2002 10학년의 경우 Form I은 4,896명, Form II는 4,880, Form III은 2,443명, Form IV는 2,464명을 대상으로 설문되었다. 본 연구는 후술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Form II의 설문에 응한 4,880명 중, 종속변수에 모두 무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4,36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관련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문제성 음주이다. 문제성 음주는 지난 30일내에 만취한 횟수와 폭음 횟수를 묻는 2문항으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는 보호변인, 위험변인, 인구학적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보호변인 중 부모와의 유대는 부모와의 대화정도,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알리는 정도, 방과 후 활동, 장소에 대한 부모의 인지정도, 귀가시간에 대한 부모의 규칙적용을 묻는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변수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701이다.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들 문항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주말에 폭음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와 이러한 음주결과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이들 문항들은 각각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은 0.841이다. 친사회적 활동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사회활동에 참석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변수로서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활동, 종교적 모임, 학교내 클럽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질문하는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변수의 Cronbach's α 값은 0.632이다. 학교에 대한 유대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과공부를 준비하는 태도, 학업성취 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변수의 Cronbach's α 값은 0.774이다.

위험변인들 중 친구의 영향력은 친구들의 음주정도와 음주 권유, 압력의 정도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754이다. 감각추 구성항은 모험행동, 규칙을 어기는 행동, 낯선 장소, 예측할 수 없는 흥분된 일을 즐기는 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은 0.855이다. 절망감은 미래에 대한 관점, 삶의 가치, 인생의 무의미, 열등감, 무력감 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은 0.886이다. 일탈행동경험은 가출, 학칙위반, 기물파손,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묻는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α 값은 0.776이다.

통제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약물사용, 음주행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의 성별, 인종,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성별과 인종은 기존연구에서 음주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eefe, 1994; Mason and Windle, 2001; Schulenberg et al., 1996). 즉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음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백인 청소년은 흑인 청소년에 비해 문제성 음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족구조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들로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지만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대해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된다(Brook et al., 1992; Holden, 1997; Vakalahi et al., 2000). 부모의 교육수준의 측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은 교육년수에 의해 측정되었고, 거주지역은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뉘어졌으며, 가족구조는 두 부모가 모두 있는 일반 가정과 한 부모 가정으로 측정되었다.⁴⁾

4) MTF 자료는 가족구조의 형태에서 양부모(step parent)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부모에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일반가정으로, 한 분만 계신 경우 한 부모가정으로 구별했다.

3) 분석절차

본 연구는 문제성 음주의 심리사회적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hierarchical)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상호작용공식(보호변인 x 위험변인)의 유의미성을 설명해야한다. 완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의 다양한 방법들 중,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상호작용공식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변인의 완충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Baron and Kenny, 1986). 위계적이고 점증적인 F 검증의 결과는 상호작용 공식(보호변인 x 위험변인)이 보호변인들과 위험변인들 각각에 의해 설명되는 것 이상의 예측력을 추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를 정리하면, 첫째,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과 문제성 음주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했고, 둘째, 문제성 음주에 대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상대적인 예측력을 분석했다. 셋째, 보호변인군과 위험변인군의 각 합계치를 사용해서 보호변인군의 전체적인(overall)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험변인들에 대한 개별 보호변인의 상대적인 완충효과를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과 집단 별 문제성 음주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과 문제성 음주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본에 속한 모든 청소년들은 10학년 16세에 해당되며, 여학생이 51.9%, 남학생이 48.1%로 구성되어 있다. 인종구성을 보면 백인이 81.0%, 흑인이 1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을 분류하면 80.2%가 도시지역에, 19.8%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6.7%가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일반가정, 23.3%는 한 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표 1>은 또한 표본을 성별, 인종, 지역, 가족구조별로 나누어 문제성 음주의 평균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의 문제성 음주 점수는 평균 4.42점 정도로 중간 점수인 6점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집단간 차이는 유일하게 백인이 흑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t=12.79$).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농촌 청소년들이 도시 청소년들보다, 한 부모 가족 출신의 청소년이 일반 가족의 청소년들이 약간 높은 문제성 음주 값을 보고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집단별 문제성 음주정도

인구학적 특성		빈도 (%)	문제성 음주 평균 (표준편차)	
성	남자	2,093 (48.1%)	4.52 (3.17)	t값=1.77
	여자	2,269 (51.9%)	4.35 (2.88)	
인종	백인	3,533 (81.0%)	4.77 (3.19)	t값=12.79****
	흑인	829 (19.0%)	3.34 (2.21)	
지역	도시	3,498 (80.2%)	4.38 (3.21)	t값=2.01
	농촌	864 (19.8%)	4.61 (2.98)	
가족구조	일반가족	3,315 (76.7%)	4.37 (3.05)	t값=1.76
	한 부모가족	1,047 (23.3%)	4.58 (3.00)	

****p < .001 N=4,362명

2) 문제성 음주에 대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에 대한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인들 간의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다수의 변인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학적 통제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문제성 음주에 대해 각각 기대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가지 보호변인은 문제성 음주에 대해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4가지 위험변인은 문제성 음주에 대해 정적(+관계를 보여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높은 상관계수(.70 이상)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의 가정에 적절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잔차도표(residual plot)와 독립변수들의 편회귀잔차도표(partial plot)의 패턴을 점검하였다. 이들 도표의 패턴들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정상성, 동변량성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Durbin-Watson의 수치가 거의 2점에(1.985)에 근접함을 보여줌으로써, 잔차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	1													
②	.03	1												
③	.07	.34***	1											
④	.09	-.35**	-.21**	1										
⑤	-.13***	.04	.28***	-.05	1									
⑥	.28***	-.38**	-.08	-.02	-.06	1								
⑦	.02	-.07	-.03	-.05	-.15**	.23***	1							
⑧	-.34***	-.36**	-.06	.01	-.07	.42***	.31***	1						
⑨	-.24***	.16***	-.05	-.07	-.06	.36***	.33***	.38***	1					
⑩	.03	-.06	.02	.23***	.32***	-.22**	-.34**	-.18**	.24***	1				
⑪	.27***	.17***	.27***	.07	.05	-.48**	-.27**	-.39**	.47***	.27***	1			
⑫	.23***	.19***	.05	.02	.08	-.31**	-.44**	-.29**	-.35**	.39***	.45***	1		
⑬	.02	-.04	-.03	.23***	.25***	-.07	-.37**	-.08**	.21***	.46***	.36***	.39***	1	
⑭	-.08	-.27**	-.06	-.03	-.16**	.53***	.24***	.45***	.44***	-.28**	-.52**	-.46***	-.35**	1

***p < .001 N=4,362명

① 성 ② 인종 ③ 지역 ④ 가족구조 ⑤ 부모의 교육수준 ⑥ 친구의 영향력 ⑦ 절망감 ⑧ 감각추구성향 ⑨ 일탈행동경험 ⑩ 부모와의 유대 ⑪ 음주결과의 부정적 기대 ⑫ 학교에 대한 유대 ⑬ 친사회적활동 ⑭ 문제성 음주

문제성음주에 대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회귀분석을 3단계로 실시하였으며, <표 3>은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인구학적 통제변수인 성, 인종, 지역,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이 제 1단계에 들어갔으며, 이들 변수들은 문제성 음주 변량의 3%를 설명해 주었다($R^2 = 0.03$; $F=16.16$). 인구학적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위험변인의 변인들 -친구의 영향력, 감각추구경향, 일탈행동경험-이 제 2단계에 추가되었다. 위험변인들은 문제성 음주 변량의 31%의 부가적인 설명력을 나타냈다($R^2 = 0.34$; $F=129.38$; R^2 변화량=0.31; $p < .001$). 인구학적 변수와 위험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제 3단계에는 보호변인들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보호변인들 -부모와의 유대,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학교에 대한 유대, 친사회적 활동-은 문제성 음주에 대한 변량의 부가적인 12%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R^2 = .46$; R^2 변화량 = .12; $F=144.76$; $p < .001$). 이때 최종적인 R^2 의 값은 0.46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문제성 음주 변량의 46%를 설명해 주었다.

문제성 음주에 대한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살펴보면, 위험변인들 중 친구의 영향력, 감각추구경향, 일탈행동경험은 문제성음주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친구의 영향력은 β 값이 .36($p < .0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탈행동경험($\beta = .29$), 감각추구경향($\beta = .19$) 순으로 문제성 음주에 위험변인으로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호변인들의 경우 사용된 4가지 변인 모두가 문제성 음주를 예측하는데 부적(-)인 유의미성을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들 중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β 값이 $-.46(p < .001)$ 으로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보호변인으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친사회적 활동($\beta=-.27$), 학교에 대한 유대($-.14$) 순으로 문제성 음주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와의 유대가($\beta=.08$) 크지 않은 β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성을 나타낸 것은 본 연구의 사례수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것 같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종이 문제성 음주에 대해 부적(-)인 유의미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흑인일수록 문제성 음주에 참여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문제성 음주에 대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영향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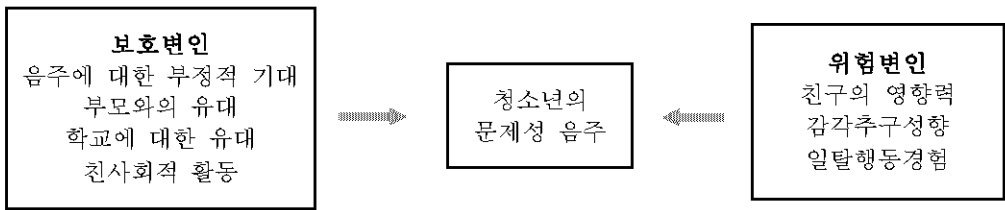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변인	성	-.02	-.04	-.04
	인종	-.17***	-.12***	-.15***
	지역	-.01	-.02	-.03
	가족구조	-.08**	-.06**	-.02
	부모의 교육수준	.03	.02	.01
위험변인	친구의 영향력		.48***	.36***
	절망감		.02	.03
	감각추구성향		.26***	.19***
	일탈행동경험		.28***	.29***
보호변인	부모와의 유대			-.08***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46***
	학교에 대한 유대			-.14***
	친사회적 활동			-.27***
R^2	.03	.34	.46	
R^2 변화량		.31***	.12***	
F값	16.16***	129.38***	144.76***	

p < .01 *p < .001 N=4,362명

a. 각 단계 아래에 있는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b. 성별: 여성=1, 남성=0. 인종: 흑인=1, 백인=0. 지역: 도시=1, 농촌=0.
가족구조: 일반가정=1, 한부모 가정=0

<그림 1>은 <표 3>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성 음주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보호변인들과 위험변인들을 도식으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문제성 음주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보호변인과 위험변인

2) 보호변인군의 전체적(overall)인 보상효과와 완충효과에 대한 분석

위의 분석에서 유의미성이 확인된 4가지 보호변인의 전체적인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사례(case)에 대한 보호변인군(4가지 보호변인)과 위험변인군(4가지 위험변인) 각각의 합계치를 만들어서 문제성 음주에 대한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인구학적 통제변수들이 제1단계에 들어갔고, 인구학적 변수들이 통제된 채로 2, 3단계에서 위험변인군과 보호변인군 합계치가 각각 추가되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4단계에서는 위험변인군과 보호변인군의 상호작용공식(위험변인군 x 보호변인군)이 추가되었다. 4단계에서 추가된 상호작용공식의 유의미한 R^2 변화량은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Baron and Kenny, 1986). <표 4>는 보호변인군의 전체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제 1단계에 들어간 인구학적 통제변수는 문제성 음주에 대한 변량의 3% 정도만을 설명했으며, 2단계에서 추가된 위험변인군의 합계치는 문제성 음주에 대한 변량의 23%를 설명했는데, 이는 R^2 변화량의 유의미한 상승(R^2 변화량 = .193; $p < .001$)을 나타냈다. 3단계에서 보호변인군의 합계치가 추가되었을 때 R^2 는 .28로 상승하며 유의미한 변화량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호변인군이 증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문제성 음주를 억제시키는 보상효과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 마지막 단계에서 보호변인군과 위험변인군의 상호작용공식이 추가되었을 때 검증된 R^2 값의 유의미한 상승(R^2 변화량 = .051; $p < .001$)은 보호변인군이 위험변인군을 완화시킴으로써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상호작용공식의 비표준화계수가 문제성 음주에 대하여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인 것은 위험변인에 대한 보호변인군의 완충효과가 높을수록 문제성음주의 사용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 보호변인군의 전체적(overall)인 보상효과와 완충효과에 대한 분석

단계	독립 변수	최종 step B	R ²	R ² 변화량
1 단계	인구학적 통제변인		.03	
	성 별	-.001		
	인 중	-1.22***		
	지 역	-.003		
	부모의 교육수준	.001		
	가족구조	-.002		
2 단계	위험변인군 합계치 추가	2.52***	.23	.193***
3 단계	보호변인군 합계치 추가	1.17***	.28	.051***
4 단계	보호변인군 x 위험요인군 추가	.021***	.29	.004*

*p < .05 **p < .01 ***p < .001

a. 각 단계 아래에 있는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임.

3) 개별 보호변인의 완충효과에 대한 분석

위험변인에 대한 개별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상호작용 공식 16가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부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식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9개의 상호작용공식 중에서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x 친구의 영향력, 부모와의 유대 x 감각성향추구, 학교에 대한 유대 x 일탈행동경험이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즉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문제성 음주에 대한 가장 큰 위험변인인 친구의 영향력에 대해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음주에 관련된 친구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를 감소시킴을 보여준다. 부모와의 유대는 감각추구경향에 대해, 학교에 대한 유대는 일탈행동경험에 대해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가짐으로써, 문제성 음주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별 보호변인의 원층효과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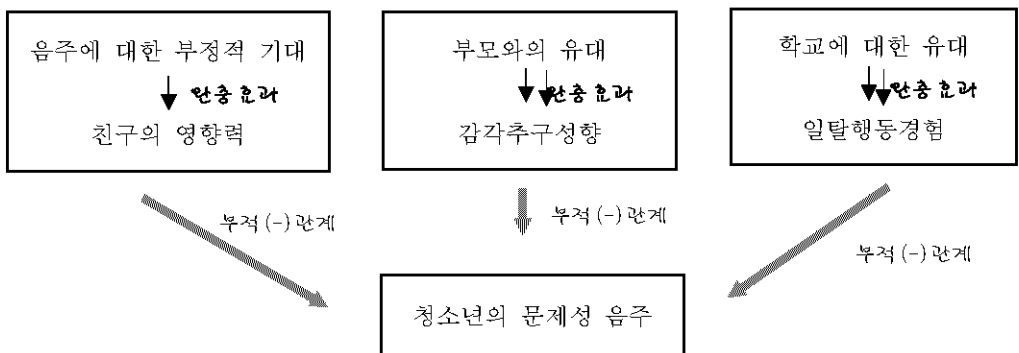
독립변수		1 단계	2 단계
통제변수	성별	-.002	-.002
	인종	-1.47***	-1.12***
	지역	.001	.001
	가족구조	-.008*	-.006
	부모의 교육수준	-.003	-.021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 x 친구의 영향력			-.215***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 x 감각추구성향			-.001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 x 일탈행동경험			-.002
부모와의 유대 x 절망감			-.001
부모와의 유대 x 감각추구성향			-.038***
학교에 대한 유대 x 절망감			-.001
학교에 대한 유대 x 일탈행동경험			-.015**
친사회적 활동 x 감각추구성향			-.002
R ²		.03	.26
R ² 변화량			.23***
		F=16.16	F=56.28

*p < .05 **p < .01 ***p < .001 N=4,362명

a. 각 단계 아래에 있는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임.

b. 2단계에 추가된 16가지 상호작용공식 중, 보호변인의 원층효과가 나타나는 부정(-)기호를 나타내는 결과만을 제시함.

<그림 2>는 <표 5>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험변인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함으로써 문제성 음주에 대해 유의미한 부정(-) 효과를 나타내는 보호변인들의 역할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그림 2> 개별 보호요인들의 원층효과

5. 요약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을 확인하고, 보호변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예방적 개입에 주는 실천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Elliott et al., 1989; Hirsch, 1969)과 문제행동이론(Jessor and Jessor, 1977)의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각각 4가지의 심리사회적 보호변인들과 위험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문제성 음주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개별 변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위험변인들 중 친구의 영향력, 감각추구성향, 일탈행동경험이 유의미한 위험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를 즐기는 친구나 또래집단의 권유와 압력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 음주행위에 친숙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문제성 음주의 경우에도 자아의 통제력과 신념을 약화시키는 감각추구성향과 일탈행동경험이 문제성 음주정도를 증가시키는 위험변인으로 기능함을 나타냈다. 이들 위험변인 중 친구의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게 문제성 음주에 대해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위험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보호변인들의 예측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부모와의 유대, 학교에 대한 유대, 친사회적 활동이 모두 문제성 음주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유대, 미성년 음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수용, 음주결과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문제성 음주에 대한 참여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 즉 보상효과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 특히 이들 보호변인들 중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예측력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음주에 대한 기대효과와 그 결과의 유해성에 대한 청소년의 명확한 인식이 문제성 음주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 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공식의 유의미한 R^2 변화량을 검토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보호변인군의 전체적인 완충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개별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 보호변인은 위험변인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진 위험변인으로 확인된 친구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 참여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유대는 감각추구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유대는 일탈행동에 대한 참여와 노출로 이미 내성이 형성된 청소년들이 문제성 음주에 참여하는 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방향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보호변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문제성 음주에 대한 예방 전략의 다각화의 필요성을 제안해준다. 즉 예방적 개입의 목표가 단순히 위험변인의 감소나 제거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호변인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지지해준다. 문제성 음주의 억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보호변인의 검증뿐만 아니라, 위험변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이하계 완충기능을 하는 보호변인의 명확화가 점차적으로 예방적 개입의 목표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Hawkins(1992)가 제안했듯이 특정 보호변인을 더욱 강화시키는 또 다른 보호변인의 확인과 이러한 보호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시너지 효과가 문제성 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보호변인들 중 상대적으로 큰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청소년들에게 음주결과에 대한 올바른 기대효과를 형성하기 위한 개입프로그램은 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단순한 정보전달 수준의 예방교육으로는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인지행동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 활동을 통해 음주효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 신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음주에 대한 인지(cognitions)유형은 이미 아동기 때부터 가정, 학교에 대한 유대와 학습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형성된다(Brody, Flor, Hollett-Wright, and McCoy, 1999). 따라서 음주결과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 기대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성 음주 결과의 유해성과 사회적 규준(norm)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주 예방프로그램의 표적 집단이 청소년과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방교육의 장기적인 비용효과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또 다른 의미만한 보호변인으로 확인된 친사회적 활동과 학교에 대한 유대는 문제성 음주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성 음주의 위험요소인 감각추구성향과 일탈 행동경험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대안활동의 참여가 음주동기와 기회를 부추길 수 있는 감정상태와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지역사회활동과 같은 대안활동에 이들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위험변인 중 문제성 음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영향력은 개입 프로그램의 표적문제에 계속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음주를 즐기는 친구와 또래집단의 권유와 압력을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저항기술(resistance skill)과 자신의 의향을 표현할 수 있는 주장기술 및 사회적 자신감의 강화는 예방적 개입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들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강화에 초점을 둔 음주 예방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Blitz, Arthur, and Hawkins, 2002; Ellickson, 1998; Johnson and Johnson, 2001).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음주 예방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 강화와 같은 단일 변인에 초점을 둔 구성내용보다는 다수의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 단계에 상호작용공식을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위험변인의 종류에 따른 개별 보호변인의 대략적인 완충효과를 확인했다. 맥클렌드와 주드(McClelland and Judd, 1993)는 완충효과 혹은 중재효과에 대한 검증은 실험(experimental) 연구 설계가 아니라면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하든 추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라

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변인의 완충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수준에 따른 보호변인의 상이한 역할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분류에 의한 변량분석모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둔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을 고려하였는데, 일반적인 음주시도 및 음주빈도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문제성 음주형태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행동적 변수에 대한 분석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MTF 2002라는 이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선택된 변수들이 그 내용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이론적 논의를 통해 또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서 다른 일반적인 음주형태와는 구별되는 문제성 음주의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을 구별하고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성 음주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엄밀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미국 청소년이외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들이 계속 반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함의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청소년 표본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역할에 대한 반복적이고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용석·김정우·김성찬. 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 71-106.
- 김용석·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74: 91-116.
- 장승욱. 2000. “청소년 문제성 음주 실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 372-396.
- Ary, D. V., E. Tildesley, H. Hops and J. Andrews. 1993. “The influence of parent, siblings, and peer modeling and attitudes on adolescent use of alcoho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8(9): 853-880.
- Bahr, S. J., A. C. Marcos, and S. L. Maughan. 1995. “Family, educational, and peer influences on the alcohol use of female and male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457-469.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K. H., T. Shattuck, T., D. Haynie., A. D. Crump, and B. Simons-Morton. 1999. “Associations between parent awareness, monitoring, enforce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lcohol”. *Health Education Research* 14(6): 765-775.
- Blitz, C. C., M. W. Arthur, and J. D. Hawkins. 2002. 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substance use. In L. A. Jason and D. S. Glenwick (eds.) *Innovative strategies for promoting health and mental health across the life span*(pp.176-20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Brody, G. H., D. L. Flor, N. Hollett-Wright, J. K. McCoy, and J. Donovan. 1999. “Parent-child

- relationships, child temperament profiles and children's alcohol use nor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3 (supplement): 45-51.
- Brook, J. S., D. W. Brook, A. S. Gordon, M. Whiteman, and P. Cohen. 1990. "The psychosocial etiology of adolescent drug use: A family interactional approach".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 116(2): 111-265.
- Cohen, J. 1978. "Partialled products are interactions: partialled powers are curve components". *Psychological Bulletin* 85: 858-866.
- Coie, J. D., N. F. Watt, S. G. West, J. D. Hawkins, J. R. Asarnow, H. J. Markman, S. L. Ramey, M. B. Shure, and B. Long.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013-1022.
- Costa, F. M., R. Jessor, and M. S. Turbin. 1999. Transition into adolescent problem drinking: The role of psycho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480-490.
- Curran, P. J., E. Stice, and L. Chassin. 1997.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 alcohol use and peer alcohol use: A longitudinal random coefficients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30-140.
- Donovan, J. E., R. Jessor, R., and F. M. Costa. 1991.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conventionality-unconventionality: An extens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Health Psychology*, 10(1): 52-61.
- Donovan, J. E., J. R. Jessor, F. M. Costa. 1999. "Adolescent problem drinking: Stability of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orrelates across a gener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352-361.
- Ellickson, P. L. 1998. School-based substance abuse prevention: What works, for whom, and how? In S. B. Kar (ed). *Substance abuse prevention: A multicultural perspective*(pp. 101-129).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 Ellickson, P. L., K. A. McGuigan, V. Adams, R. M. Bell, and R. D. Hays. 1996. "Teenagers and alcohol misuse in the United States: By any definition, it's a big problem". *Addiction*, 91(10): 1489-1503.
- Elliott, D. S., D. Huizinga, D., and S. Manard. 1989. *Multiple problem youth: Delinquency,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problems*. New York: Springer-Verlag.
- Farrell, A. D. and K. S. White. 1998. "Peer influences and drug use among urban adolescents: Family structure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s protective act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48-258.
- Fishbein, M.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letcher, A. C., N. Darling, L. Steinberg. 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J. McCord (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erm perspectives* (pp. 259-27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M. W., J. M., Rishman, and J. Galinsky.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131-143.
- Gorman, D. Z. and J. H. Derzon. 2002. "Behavioral traits and marijuana use and abuse: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Addictive Behaviors* 27: 193-206.

- Greene, R. R. 2002.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Washington, D.C.: NASW Press.
- Hawkins, J. D., J. W. Graham, E. Maguin, R. Abbott, K. G., Hill, and R. F. Catalano. 1997. "Exploring the effects of age of alcohol use initiation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on subsequent alcohol mis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280-290.
- Hawkins, J. D., R. F. Catalano, and J. Y. Miller.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64-105.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gan, J. A., K. R. Gabrielsen, N. Luna, and D. Grothaus. 2003. *Substance abuse prevention: The intersection of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Allyn and Bacon.
- Holder, H. D. 1994. "Alcohol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as part of the puzzle: Thoughts on alcohol problems and young people". In R. Zucker, G. Boyd, & J. Howard (eds). *The development of alcohol problems: Exploring the biopsychosocial matrix of risk* (pp.209-24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 Jessor, R. and S. L. Jessor.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Academic Press.
- Jessor, R. 1998. *New perspective on adolescent risk behavior* (e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sor, R., J. Van Den Bos, J. Vanderryn, F. M. Costa, and M. S. Turbin.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Johnson, P. B. and H. L. Johnson. 2001. Reaffirming the power of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 smoking and drinking decisions. *Adolescent & Family Health* 2(1): 37-43.
- Johnston, L. D., P. M. O'Malley, and J. G. Bachman. 2002.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200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n Drug Use.
- Keefe, K. 1994. "Perceptions of normative social pressure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use: Chang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1): 46-54.
- Mason W. A. and M. Windle. 2001. "Family, religious, school and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44-53.
- McClelland, G. H. and C. M. Judd. 1993. "Statistical difficulties of detec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114: 375-390.
- Nagasawa, R., Z. Qian and P. Wong. 2000. "Social control theory as a theory of conformity: The case of Asian/Pacific drug and alcohol nonuse". *Sociological Perspectives* 43(3): 581-603.
- Oxford, M. L., T. W. Harachi, R. F. Catalano, and R. D. Abbot. 2000. "Preadolescent predictors of substance initiation: A test of both the direct and mediated effect of family social control factors on deviant peer associations and substance initiation".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7(4): 599-616.
- Pollard, J. A., J. D. Hawkins, and M. W. Arthur.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chulenberg, J., K. N. Wadsworth, P. M. O'Malley, J. G. Bachman, and L. D. Johnston. 1996. "Adolescent risk factors for binge drinking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Variable- and pattern-centered approaches to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659-674.
- Steinhausen, H. and C. W. Metzke.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259-280.
- Vakalahi, H. F., R. S. Harrison, and F. V. Janzen. 2000. "The influence of family-bas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1): 21-34.
- Windle, M. 1999.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logical base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Impact of Psychosocial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American Adolescents: Focused on Compensatory and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Kim, Young-Mi
(Dong-Eu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sychosocial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American adolescent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ensatory and buffering effects of psychosocial protective factors. The sample consisted 4,362 10th graders taken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2002. This study performe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data analyses. The main findings provided that friend influence, sensation-seeking, and tolerance of deviance ha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roblem drinking as risk factors.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negative perception on drinking, parental bonding, school bonding, and prosocial activity had significant direct impacts in decreasing problem drinking, which explains the compensatory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Additionally, this study showed that negative perception on drinking had a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moderating friend influence on adolescents' opportunities exposed to problem drin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that target adolescent problem drinking.

Key words: problem drinking, protective factor, risk factor, compensatory effect, buffering effect

[접수일 2004. 9. 3. 게재 확정일 2004. 10. 20.]